

◆ 장페이페이 외, 『한중관계사』(c1998/ 2005) 7장, 8장 고려 (송.요.금/ 원)

1. 한중관계 기본변수

(1) 힘의 크기 (영토.병력, 국가장악력, 군사기술, 항해기술, 산업)

(2) 지정학적 요인

- 접경 여부: 고려는 요, 금과 접경/ 송과는 격절
- 지리적 요소: 압록강은 중국 동북세력의 남하 저해

(3) 전략적 이익: 공동의 적, 견제

(4) 왕조의 성격/ 문화.규범적 공통성

- 송: 한자문화권, 당의 예약 계승
- 요 (cf. 금: 여진)
- 원: 통혼관계 통한 문화적, 종족적 동질화 강요

2. 체제변동과 한반도 전쟁의 유인

- 동북변경 요동의 신흥세력
- 왜구.일본의 대륙진출

3. 국내변수: 정치적 통합

- ex. 1009년 고려의 강조 정변: 요의 2차 침략 빌미 제공
- ex. 1135년 묘청의 난: 남송이 사신 군사지원 제의, 금과의 전쟁에 연합의사 타진, 고려 거절
- ex. 1269년 임연의 난: 몽고의 출병과 서경 점령 계기

4. 국제제도로서의 조공책봉 (연호, 정삭, 조공)

(1) 국가 승인 효과

ex. 1031년 요 성종 사망: 고려는 요의 압록강 다리 제거 요구 & 새로운 군주의 연호 불사용 및 조공중단 (상호승인 기재)

(2) 배타적 동맹(신속) 관계 표시

ex. 1069년 남송의 밀사 파견으로 고려-송 외교관계 회복, 송은 책봉과 정삭 문제 불언급 & 고려, 송에 보내는 공문서에서 요나라 연호 사용하지 않음.

5. 갈등과 협력의 의제

(1) 파병

- 송요 전쟁(‘옹희복벌’ 986) 파병요청 고려 거절
- 1차 여요전쟁시(994) 송은 고려의 지원 요청 거절/ 거란과 단연지맹(1004) 이후 2차 여요전쟁(1010-1019) 당시 중립, 1015년 고려의 파병 요청 거절
- 요금전쟁(1114-1115)시 고려, 요의 출병 요청 거절하고, 기회를 틈타 압록강 동부 보주 탈환(pp.271-274)
- 송금전쟁(1161)시 남송, (거란, 하, 발해) 고려에 수 차례 파병 요청, 고려는 거절 (실제 군사지원보다는 제후국과 금의 연합방지 목적)

- 원조 말기 대규모 민변(1354)에 고려 파병

(2) 영토: 한중 접경지대

- 압록강 동부 6개성: 여요 갈등원인, 고려는 지속적 상소, 힘의 우위인 요는 영토잠식
- 갈나전 9개성: 고려-여진 전쟁(1104-1110)원인, 고려는 조공·세비 받는 대신 영토 양보 (요는 방관)
- 보주: 고려-금 외교쟁점(1126-1130). 고려가 지배하는 보주 지역에 대한 금의 인구 접수 요구, 1129년 고려는 '맹서의 표'를 통해 신속의사 표명하며 보주 확보 (주희, "고려가 여진과 접경해 있으면서도 여진에게 멸망되지 않은 것은 외교적 술수 때문이다." p.294)
- 쌍성총관부: 1258년 몽고 강점, 1356년 공민왕이 반란 진압 명의 출병, 영토 수복

외교적 중개 ("길을 빌려달라"/ 동맹배신?)

인민

교역

지식, 기술

문화

6. 역사적 변천: 고려의 '실리외교'

(1) 송-요-금

- 송조 수립 직후 고려 조공책봉(962), 고려-송은 상호 군사지원 안 함, 우호적 외교관계 지속, 송 연호 회복(1016)
- 1차 여요 전쟁(993) 패배로 고려, 거란 연호 사용(994), 정전협약 후 거란 연호 회복(1022), 2차 여요전쟁(1009~1019) 결과 요가 전쟁에는 승리, 그러나 고려 정복·직접통치 불가 깨닫고 칭신조공에 만족
- 1020, 30년대 고려는 요동에서 발흥한 흥요국(1029-30) 인정(요와의 완충세력)& 발해유민 포섭, 동여진의 조공 받으며 맹주 역할
- 요에 대항한 고려-송 군사연합은 실현되지 못함: 문종 송에 견사 시도 신하들의 저지(1058) 요의 세비증가 요구에 대한 송 부필의 북부변경수호 12가지 대책(1044, p.256)은 실현되지 못함, 그러나 고려의 존재 자체가 요 견제=송의 고려 후대
- 1071년 이후 한중관계 안정: 송요 형제관계, 고려는 요에 조공, 고려-송은 우호왕래 (BOP?)
- 1117년 금은 고려에 형제관계 제의 (요금전쟁시 후방안전 확보), 이후 고려는 송과의 우호관계 강화, 1119년 요금전쟁 승리 후 금의 자세 변화('칙서')
- 송: 금과 연합 요와 전쟁=전략적 실패 (단연지맹 이후 우호인접국인 요/ 영토확장 신흥세력 금에 대한 첩보 부족) (1119년 고려의 충고 무시) (1123년, 고려에 사신 파견, 송 연호 회복 구두 전달) (*서금, 『봉사도경』 "북부 오랑개에 굴복했던 것은 다 무력 때문이다....천조 황제가 인덕을 베풀어 정신적으로 통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북부 오랑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지금 북부 오랑개가 멸망하였으니 고려에서 정삭을 청할 때가 되었다." p.280)
- 금의 요 멸망(1125)과 고려의 외교정책 조정
= 송의 대금 출병 요청 거절, 김부식 등 송나라에 사절 파견(1126): 송은 고려의 첩보활동 우

려, 조공품만 접수

=북송 멸망(1127)과 남송의 금에 대한 중개요청(길을 빌어 입경) 거절(1128)

=남송은 금의 간첩 의심 때문에 고려의 사신 입국 거절, 남송-고려 외교단절(1136) (1162), 대금 연합의사 간헐적 타진 계속

= 금 세종은 고려와의 전쟁 회피(1164년 변경분쟁, 1170년 무신정변에 불간섭 책봉, 1175년 서경 반란세력의 지원요청 거절)=고려-금 장기간 평화 안정

→송.요.금 시기: 북송, 요, 서하, 대리, 남송, 금 병립/ 통일제국 출현 못 함/ 송.요.금 모두 중원세력전쟁에서 고려의 역할 중시 (독립적, 실리적 외교 정책 가능)

-원: 전통적 조공책봉관계와 차별, 종속국에 대한 통제와 착취

-원은 한반도 북부 직접지배: 1258년 쌍성총관부 설치, 1269년 서경 점령

-강권정치+통혼관계에 대한 평가:

(i) 왕조의 존립은 몽고제국 통치에서 매우 특수한 사례 (고려국왕은 정동행성의 좌승상, 일정한 자치권, 재정 독립)

-고려 직접통치 기도 저지: 일본 원정 빌미로 군대 파견, 군현제 실시 주장(1269, pp347-348)/ 원 조정의 정동행성 실체화 논의(1299, 1302, 1322, 1330, 1334 pp372-375)

(ii) 힘의 강약이 반영된 불평등관계: 고려 왕위 계승에 관한 원의 간섭, 고려 왕실은 원 귀족 집단으로 융합

(iii) 고려 왕조는 원의 후원으로 권신세력 견제

7. 질문

○ 자주국방 안 되는 이유?

-중원 통일왕조의 등장 (힘의 현저한 불균형)

-한반도의 지정학적 취약성 (해양-대륙 세력의 연결통로)

○ 16세기 조선은 왜 문약? (고려-조선초와 차이, 임진왜란 '재조지은'/인조반정/ 소중화의식)

8. 비판

-‘사대주의’?: “소국인 고려는 이미 복종하는 것으로 평화를 얻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vs. “‘사대’는 소국이 강국과 대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영특한 선택이었다.”(p.281)